

## 에큐메니컬 운동의 두 어른을 그리워하며

남부원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크고 중요한 자리에 서도록 초청해 주신 안재웅 이사장님과 10주기 추모 준비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두분을 더 깊이 알고 동시대에 함께 일하셨으며, 또 두분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은 분들 앞에서 제가 두 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썩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한달여동안 한국 에큐메니컬운동의 큰 어른이신 두분의 삶의 자취를 더듬으면서 저 자신에게 커다란 공부가 되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삶 속에서 두 분과의 마주침과 주신 가르침들을 되새기면서 숙연히 웃기를 여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먼저 오재식 선생님의 삶에 대해 부족하나마 제 생각을 나누고, 이어 강문규 선배님에 대한 생각을 나눈 후에, 두분을 함께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 1. 오재식 선생님

저는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오재식 선생님을 아주 늦게서야 만나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전에는 여러 선배들로부터 오재식 선생이야말로 “몸으로 행동하는 진정한 운동가시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오던 터였습니다.

2004년 초 어느날 한국YMCA전국연맹의 정책기획국장으로 일하던 저는 당시 이학영 사무총장님과 협의하여 연맹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선교선언문”을 작성하는 일을 상의드리러 오 선생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제가 찾아온 취지를 말씀드리자마자 오 선생님은 제게 거꾸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남부원씨는 왜 YMCA운동을 하나? 남국장의 YMCA운동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선명하게 답변하면 내게 부탁한 일을 돕겠네. 그 때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오재식 선생님의 삶은 당신의 회고록 “나에게 꽃으로 다가오는 현장”에서 쓰셨듯이 “미친 듯이 살아온 삶”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일절 재지 않았고, 주어진 삶이라면 그저 살아낸, 막무가내로 끌고온 생”이셨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치열하게 응답한 삶”이셨습니다.

이번에 회고록을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저는 오선생님께서 왜 당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셨을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미 “함석헌 선생님을 통해 동양사상

과 민족사상, 통일사상을 섭렵하셨고, 김재준 목사님을 통해 당시 최신 신학적인 서양문명의 사상을 접하셨지요.

고등학교 1학년때 당시 김형석 선생님이 중앙고등학교에 조직하신 "기독교학생회"에 참여하면서 오선생님의 그 지난한 조직생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이후 강원용 목사님과의 만남, 김정문 선생님 주도하의 "기독교사상연구회"의 활동, 이어진 서울대학교 문리과 기독교학생회 회장으로서의 경험 등이 이후 오선생님의 삶의 방향을 주조한 주요단초들로 보였습니다. 군 복무 중 기독교학생회 활동 가운데 만난 노옥신 여사와의 결혼은 이후 두분의 삶을 운명처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노옥신 여사님은 오선생님의 표현대로 "아내야말로 지나온 세월을 나의 동반자로서 곳곳하게 견디며 용감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오선생님은 회고록 9장을 따로 할애하여 노여사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실으심으로 그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표현코자 하셨습니다.

KSCC에서의 간사로서의 역할은 오선생님의 이른바 "뒷바라지 운동인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오선생님은 KSCC에서의 4년동안, 기독교학생회, YMCA, YWCA에서 온 학생들을 여하히 기독교운동의 지도력으로 키울 것인가를 화두로 일하셨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동안 함께 일한 레이니 선교사의 추천으로 예일신학대학교 석사과정에서 공부하셨고, 마지막 학기 중에 조지 타드 목사님의 소개로 소울 알린스키를 조우하게 되셨지요. "당신들 죽을 때 침대에서 죽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의 공격적인 강의와 합숙훈련 등은 이후 오선생님의 운동철학과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용 목사님과의 길지 않은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WSCF로 떠나는 강문규 간사의 후임으로 YMCA전국연맹의 대학생부 간사로 취임하셨지요. Y연맹에 들어가자마자 1955년부터 WSCF가 요청해온 세 단체의 통합의 과제가 오선생님의 우선적인 숙제가 되어 이를 위해 애쓰셨고, 드디어 1969년 KSCM과 YMCA가 KSCF로 통합되면서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 그 역사적인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을 시작하셨지요. "현장으로 가라, 민중의 삶과 고난을 보라, 민중과 함께 행동하라"는 슬로건으로!

아마도 오선생님의 삶에서 전태일의 죽음은 또하나의 카이로스적인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기독교학생운동과 산업선교가 서로 손을 잡을 무렵, 전태일의 분신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 분개한 오선생님은 당시 기독교사상 12월호에 "어떤 예수의 죽음"이란 추모사를 쓰셨지요. 마지막 한 구절만 옮긴다면, "네가 장터에서 선동을 하고 네 목숨을 내어 맡길 때 교회는 철문을 굳게 잠그고 취침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있었다."

CCA URM 간사로 부임하신 오선생님은 사무실이 위치한 도교를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다양한 운동을 조직해 나가셨습니다. 1972년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지명관, 김용

복 선생과 함께 <한국 기독교인의 선언>을 작성하여 국내로 보냈고, NCK에서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희 독재정권의 살벌한 탄압 정국 속에서도 월간지 세카이에 TK생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 16년간 실릴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일하셨습니다. 회고록에서 오선생님은 "이 일은 진실이 담긴 글의 위대한 힘과 뜻있는 사람들의 뒷받침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하는 채찍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정의하셨습니다.

1년간의 하버드대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셔서 NCK에서 선교훈련원과 통일위원회 원장을 맡아 각 지역 젊은 목회자들을 사회, 국제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통일위원회를 통해 1984년 통일운동의 물꼬를 튼 도잔소회의를 조직하셨습니다. 당시 "통일이라는 말조차 금기시할 정도로 암울한 군부독재시대에 NCK 통일위원회에서 기획하고 WCC의 협조를 얻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통일운동의 물꼬를 트셨지요. 이 도잔소회의는 1986년 9월 북한기독교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한 글리온회의로 연결되었고, 이는 다시 1988년의 이른바 <88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WCC 개발국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선생님은 세계교회운동의 주요과제를 '개발'(Development)로부터 JPIC 즉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으로 이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셨고, 2년후 한국에서의 JPIC대회 개최, 그리고 2013년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주제로 한 WCC 부산대회의 이른바 생명신학의 태동에 이르기까지 에큐메니컬 운동의 신학적 성찰과 담론 형성에도 기여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월드비전 회장으로서 씨감자 프로젝트 등 북한에서 이루신 일들 등 당신이 주조하신 많은 일들을 여기 다 열거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여러 선배들로부터 제가 들은 오선생님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며, 생각의 막힘이 없이 문제를 뚫고 헤쳐나가는 추진력이 탁월하신 반면, 따뜻하고 온화한 인간미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올바른 일에 대한 시대적 부름을 알아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깨알과도 같이 박혀 있어,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현장은 신학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현존은 신학과 교리를 앞서간다는 것을 나는 인생의 경험에서 배웠다. 신학적인 추론을 가지고 현장에 가지 말고, 현장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하게 하라. 현장이 우리에게 일감을 지시해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회고록 10장은 당신의 지난온 삶을 깊이 반추하면서 길어올린 사유와 성찰의 글들이 실려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횡포로 자유나 해방, 신뢰관계 등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도 종교가 그 문제에 대해 바로 지적하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적이 사라진 자본민주주의의 장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악마가 사라진 천사의 횡포"를 무슨 힘이 견제하고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

사람을 키우는 일에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이신 선생님은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는 사회적인 인력개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늘 주창하셨고, 국가를 넘어 Civil World, 즉 공간을 공유하자, 공간을 관계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창조세계의 관계를 모두 다 편안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과 큰 숙제를 저희에게 남기셨습니다.

## 2. 강문규 총무님

저는 강문규 총무님은 저를 Y연맹 간사로 직접 채용해주신 분이면서, 오재식 선생님과 비해 강총무님은 비교적 접촉과 대화가 많았고 각종 YMCA 회합을 통해 근거리에서 자주 뵈었기 때문에 추모의 글이 조금 더 쉽게 쓰여졌습니다. 강총무님은 당신의 회고록 여러 곳에서 “나는 상당한 행운아였다”고 고백하십니다. 강총무님의 전체 삶의 여정을 꼼꼼히 탐색하면서 저는 그분의 생애 전체를 걸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강총무님은 엄격하고 강직했던 아버지. 그리고 자애롭고 따뜻했던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나고 훈육받으셨습니다. 진주사범학교에서 기독교학생회 (추후 “진사YMCA”)를 조직하셔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YMCA 전국하령회를 통해 함석헌 선생의 강연에 감화를 받고, 거기서 평생의 멘토요 선배인 김천배 선생을 만나셨지요.

6.25와 함께 군에 입대하셨고, 제대 후 경북대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경북대 기독교학생회에서의 맹렬하게 활동하십니다. 대학시절부터 김천배 당시 연맹 대학부 간사로부터 현대 신학을 배웠는데, 급기야는 김천배 선생의 초청과 설득으로 Y연맹 대학부 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시 김천배 선생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었다”는 고백을 읽었습니다. 대학Y 간사를 하면서 박상증, 오재식, 손명걸 등과 가까이 친구 그리고 평생의 운동 동지가 되었습니다.

1960년 유니언신학교로 유학하신 후, WSCF 남미 총회에서 WSCF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오재식 선생님이 대학Y 후임간사로 오시게 되었지요. 강총무님은 이 시기에 WSCF의 야심작인 이른바 LMC (The Life and Mi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생명과 사명)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신학 훈련을 철저히 받으셨는데, 이 LMC가 이후 강총무님의 선교론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본회퍼의 ‘종교가 배제된 기독교(Religionless Christianity)’와 세속화 논쟁이 확산되면서 ‘아시아의 발견’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WSCF 간사시절 당시는 각국의 지도자 발굴과 훈련, 그리고 각국 SCM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모으고 지원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또한 1968년 핀란드 오타이메이 총회에서 “지역화에 대한 고찰 (A Reflection on Regionalization)”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채택됨으로써 사무실을 제네바에서 아시아의 현장인 도쿄로 본부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당시 ALDEC(Asia Leadership Development Center)로 알려진 지도력훈련 프로그램을 힘껏 추진하셨습니다.

1974년 대한YMCA연맹 총무로 취임하셨지요. 당시의 상황을 “재정이 바닥나고 지도력이 부재하고, 이념이 공허한 현실이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당신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신념으로, 중요한 몇가지 운동적 시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당신의 표현대로, “새로운 YMCA 정신의 투입구”로서 “목적과 사업위원회”를 조직하셨는데 당시 내노라하는 신학자들, 이를테면 현영학, 서광선, 유동식 교수 같은 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또 전교조의 전신인 중등교사협의회를 조직하고, 다락원을 통해 노동자훈련, 노조간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당시 간사양성학교를 체계화하여 지금까지 다른나라 YMCA와 NGO들의 모범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아태Y연맹의 “아시아 중견간사학교(Advanced Studies Program)”도 한국연맹에서 하는 모델부터 배워온 것입니다. 또하나 귀하게 하신 일은 이창식 당시 연맹간사의 제안으로 민청학련 관련된 기독교청년들을 간사로 채용한 일입니다. 황주석, 신대균 등 10여명의 청년들이 대거 전국YMCA에 기용되었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세계YMCA 차원에서는 1973년 우간다 캄팔라대회에서의 타협 이후, YMCA는 세계적으로 프로그램은 다기화되고 뿔어나갔지만 신학적인 뒷받침은 뒤따르지 못했다고 평가하셨어요. 당시 캄팔라대회에서는 자기나라의 목적문 채택을 권고했는데, 강총무님의 주도로 목적과사업 연구위원들과 함께 1976년 한국YMCA 목적문 채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역사적 책임의식”, “민중의 복지향상”은 전세계 120개 국가연맹의 목적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대정신의 산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념형성의 결과로 인해 1970년대 중반부터 20여년동안 한국YMCA가 세계YMCA운동에서 이념적 주도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념형성과 YMCA운동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 정립 과정에서 그 유명한 “YMCA는 열린 형태의 교회이다.”라는 정의가 수립되었습니다.

1984년 Y연맹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YMCA이념추구사업의 결실인 20년 영인본 사업, 그리고 특별히 김천배 선생님과 송건호 선생을 집필자로 “한국YMCA운동사를 정리”해내신 일은 큰 과업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 김천배 선생의 날카로운 역사적 문제의식 즉, 한국YMCA의 시작과 에큐메니컬운동을 구한말의 개화기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는 문제의식이 “1895년 윤치호의 배재학당에서 학생YMCA 시작”이라는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통일문제를 심의한 첫 국제회의인 도잔소회의는 글리온 남북기독자회의와 글리온선언으로 이어졌고, 이후 본격적이 통일논의와 함께 다양한 남북 교류운동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강총무님은 YMCA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활발한 대외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NCKK, WCC CCIA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을 14년간 두 번의 임기를 감당하셨고, 이 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맹 40년을 다 마치시고는,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설립,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발족과 활동, WCC 회장으로 선출과 기여, 당신이 마지막 봉사라고 표현하신 “지구촌나눔운동”의 설립과 활동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시의 회고록과 유고집 “시민사회운동의 길”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총무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김숙자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만나볼 기회는 없었지만, 연초에 선후배들과 갈현동 자택에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가면 항상 정성 어린 음식과 다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극진히 대접해주셨는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김숙자 여사님의 ‘지극하고 치열한 내조’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 3. 이제 두분의 삶을 교차시켜 보며 제 이야기를 마감하려 합니다.

분명히 두 분은 동시대의 탁월한 에큐메니컬 운동가이셨습니다. 당시 시대가 요청하는 주요 운동과제에 두분의 성함이 꼭 함께 나오지요. 이렇듯 두분의 삶과 운동은 중첩되고 교차되었습니다. 몇가지만 예를 든다면, 청소년기 기독교학생회의 조직과 활동, 대학YMCA 등 기독교청년들과의 운동적 씨름, 도산소 프로세스, 글리온회의와 88선언, 한국 시민사회의 초기 형성기 시민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신 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족화해를 위한 노력 등 등. 이는 두 분 다 예리한 역사의식을 지닌 신앙인으로서 시대적 과제와 소임에 충실한 삶을 사셨다는 반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가 두분을 함께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 두분의 지도력

오재식선생님은 그분의 성정도 그렇고 또 알렌스키의 영향도 받으셔서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필요한 사람과 과제를 씨줄날줄로 조직하여 일이 성사되도록 ‘형성’해 가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강문규총무님은 날카로운 지성과 카리스마로 문제의 정곡을 찌르면서, 당신 본인이 좌표를 설정하여, 치고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라고 묘사해봅니다. 저는 두분의 지도력의 특성이 상호 보완되면서 후배들에게 더 성숙한 지도력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분이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운동의 유산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두분이 치열하게 씨름하셨던 신학적, 사상적 사유의 유산과 과제입니다. 이른

바 제도적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지금, 우리사회와 한반도 나아가 인류사회와 피조물 전체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정신적, 영적 샘물로서의 우리시대의 신학을 정립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물론 다양한 운동적 실천과 동반되어야 하겠지요. 둘째는, 첫째와 연결되는 과제로서, 한국 에큐메니컬운동의 재정립과 재활성화의 숙제입니다. 특별히 청년세대를 포함, 다가오는 세대를 육성하고 이들을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심으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예비하는 것이겠지요. 이 과제를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현세대들에게 “무제한의 투자와 공동의 헌신”이 새롭게 요청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